

3/1/15

설교 제목: 예수님이 걸어 가신 십자가의 길 2 (광야 시험)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마 4:1-11

- (마 4:1) 그 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 (마 4:2) 사십 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 (마 4:3)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 (마 4:4)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 (마 4:5)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 (마 4:6)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치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절관주** 고후 4:2, 벵후 3:16
- (마 4:7)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 (마 4:8)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 (마 4:9)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 (마 4:10)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 (마 4:11)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아와서 수종드니라

지난 주 예수님께서 요단 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사건이 예수님 공생애 3년의 시발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지난 주 말씀 다음 말씀입니다.

- (마 4:1) 그 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 (마 4:2) 사십 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 40일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이 좀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성령에 이끌리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셔야 했습니까?

더군다나 성령에 이끌리어????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사실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시험을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와 꼭 같은 인간이셨지만 죄는 없는 분이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이런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은 다른 어떤 의도가 있었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1.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그 시험을 이김으로써 메시아 자질을 인정 받아야 했다.
2.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순간 인간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전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이상 죄가 없으신 분이 아니라서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된 것이다.
3. 인간의 연약함을 온전히 이해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마귀에 직접 시험을 받으신 것이다.

그러나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때는 바야흐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시고 40 일 금식까지 마치셨습시다만 아직 어떤 일도 행하시기 전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이라면 여러분은 이 시점에서 무슨 일을 가장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서는 지금 앞으로 공생애 동안에 있을 마귀와 세상과의 싸움을 예시하고, 또 그 싸움에서 당신이 승리할 것이라는 결정적인 사실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앞으로 공생애 3 년 동안에 하실 일과 결과를 이 사건을 통해 상징적으로 먼저 선포하고 계신 것이란 말입니다.

연설을 하거나 글을 쓸 때 연설자나 글쓰는 이는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논지를 세가지 방법(두괄식이나 미괄식, 양괄식)으로 나타냅니다.

두괄식이란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결론을 연설이나 글의 맨 앞에다 두는 전개 방법이고 미괄식이란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결론을 연설이나 글의 맨 말미 즉 끝에 두는 전개 방법입니다.

양괄식이란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결론을 연설이나 글의 맨 앞과 말미에 각각 두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쓰신 방법이 바로 양괄식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공생애 시작과 마지막에 마귀와 세상에 대한 승리를 이루어 내심으로써 당신이 이땅에 오신 뜻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려는 마귀의 모든 시도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참담한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단호히 보여 주고, 당신이 인간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써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킬 것임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이 마귀의 시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욥기에서 보듯 마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세상 누구라도 시험하거나 건드릴 수 없습니다.

(욥 1:6)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욥 1:7)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녔나이다

(욥 1:8)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 1:9)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욥 1:10)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욥 1:11)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욱하지 않겠나이가

(요 1:12)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이런 맥락에서 보면 본문에 나오는 '성령에 이끌리어'라는 말도 자연스럽게 이해가 갑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승리의 결과를 미리 선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하에 예수님과 마귀의 한 판을 벌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모든 시험에서 실패하고 물러난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 사건은 사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을 받은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1. 첫 번째 시험을 보시겠습니다.

(마 4:3)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 4:4)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의 답변이 동문서답 같기도 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답변들은 언제나 정곡을 찌릅니다.

예수님의 이 답변은 내가 네 계략, 네 레파토리 다 꿰고 있다. 아담과 하와가 바로 여기에 속아 넘어간 것 아니냐? 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계략은 아담과 하와의 육체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욕구를 이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의 의도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단순히 선악과를 먹게 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드는 데에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에게도 같은 계략으로 접근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처한 상황, 예수님은 지금 40 일 금식을 하신 직후라 극심한 배고픔에 있습니다.을 이용하여 예수님을 무너뜨리고자 먹을 것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 계략을 이미 알아 차리시고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대답하심으로써 원천적으로 봉쇄해 버리셨습니다.

인용된 신명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 8:2)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사십 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신 8:3)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서는 이 말씀을 인용하심으로 마귀에게 아담과 하와는 너의 계략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였고 그 결과 내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실하게 하는 아픔을 남겼지만 나에게는 그것이 안 통한다는 것을 당당하게 밝히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마귀의 계략을 이렇게 완전히 깨뜨리심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게 되었고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인간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보여 주신 것입니다.

2. 두번째 시험

예수님을 무너뜨리려는 마귀의 두 번째 시도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5-6 절을 보시겠습니다.

(마 4:5)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마 4:6)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치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셔서 사자들로 하여금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치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한 번 뛰어 내려봐라"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을 시도했을 때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시도를 무참히 짓밟아 버리자 이번에는 마귀 자신도 시편 말씀을 가지고 "자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한번 해보라" 하며 바람을 잡은 것입니다.

마귀가 인용한 시편 귀절입니다.

(시 91:9)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여호와여

- (시 91:10)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 (시 91:11)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 (시 91:12)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신실성에 대한 예수님의 믿음을 흔들려 보려는, 그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해 주시나 그렇지 않나를 시험하게 만들려는 계략이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영리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간은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의 계략을 꿰뚫어보셨으며 그러기에 아주 단호하게 대답하셨습니다.

- (마 4:7)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인용된 기록 신명기를 보겠습니다.

- (신 6:16) 너희가 맛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맛사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 (출 17:1)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딴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 (출 17:2)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 (출 17:3)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 (출 17:4)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 (출 17:5)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 (출 17:6) 내가 호렙 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출 17:7) 그가 그 곳 이름을 맛사 또는 므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었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당신을 무너뜨리려는 마귀의 두 번째 시도도 무참히 무력화 시키셨습니다.

3. 세번째 시험

두 번째 시도도 실패하자 마귀는 예수님을 무너뜨리려는 세번째 시도를 감행했습니다.

(마 4:8)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마 4:9)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운 시도도 실패하자 마귀는 이번에는 아주 대담한 계락을 시도했는데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이라는 미끼로 유혹하여 하나님을 버리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경배는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할 경배를 마귀에게 돌리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같은 존재를 또 하나
만들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창 3:5) 하는 말로 아담과 하와를 속여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니면서도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려는 교만의 죄에 빠지게 했던 마귀의 간계와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응수가 무엇이었습니까?

10 절에서 보는 대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신 것입니다.

한국에서 대학입시 때가 가까워지면 새벽에는 교회에 가서 새벽기도 드리고 낮에는 성당에
가서 기도하고 저녁에는 절간이나 산에 가서 또 촛불 켜놓고 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로라
하면서도 사찰마다 쫓아다니며 불상 앞에서 합장하고 머리 조아리며 연등 달아주고 후원금
내고 다니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표를 의식해서 자신은 기도교인이고 wife 는 불교인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정치가 들도 보았습니다.

참된 하나님 경배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바램 속에서 재물이든 명예든 쾌락이든 하나님 외의 다른 어떤 것을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두는 것은 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이며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돌려보려던 마귀의 술책을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말씀 한마디로 간단히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세상을 죄와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그의 구원사역의 문을 힘차게 여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신 것은 마귀와 그 사악한 권세에 대한 선전포고였으며 마귀의 패망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도래를 예표한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실한 원인이 무엇이며, 바른 하나님 나라 삶의 도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무산시키려는 마귀의 세 차례의 시도에 대응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둘째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셋째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만을 섬기는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자리를 드리고 그 앞에서 인간의 자리를 지키는 겸손입니다.

본문 마지막 절을 보시겠습니다.

(마 4:11)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아와서 수종드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기는 삶을 살 때 마귀는 물러나고 천사들이 우리의 삶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삶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하시며 가르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과 신뢰와 참된 경배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과 신뢰와 경배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향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